

독일 문화와 예술

-인문학적 독일학의 가능성과 문제점에 대하여

배정희(연세대 강사)

I. 들어가는 말

'독일 문화와 예술'은 전교생을 대상으로 개설된 교양강좌이다. 이 강의는 지역학으로서의 독일학에 일차적인 의미를 두었다기 보다는 일반 학생들의 '문화와 예술'에 대한 고조된 관심에서 출발한 것이었다. 이 두 차원이 강의의 실제에 있어서는 비록 불가분한 것이긴 하지만 지역학적 인식과 지역의 제현상 중의 하나인 문화와 예술에 대한 접근, 제시 방식은 분리하여 고찰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학과내의 지역학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은 불어불문학과와 '프랑스문화와 예술'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독일문화와 예술'이 지역학적 인식으로부터 보다 긴장되고 다양한 문화, 예술의 이해에 다가갈 수 있음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본고는 '독일문화와 예술'의 예에서 인문학적 기반에서 시도되는 지역학으로서의 독일학의 가능성과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강의의 내용과 방식

1. 독일학적 관점

강의계획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강의 소개'와 '보충및 정리(혹은 종합질의 응답)'로 이름지어진 수업단계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연대기의 순서를 밟고 있다. 여기에 수업내용 상으로는 문학, 미술, 건축, 음악을 각 시기마다 한 분야 내지는 두 분야씩 중점적으로 부각시켜 다룸으로써 강의전개의 외형적 형식으로 보면 문화사의 한 변형이라고 보아도 일단

은 무방하다.

기존 문화사의 틀을 빌리고 있는 이 강의는 그러나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관점에서 의식적으로 '독일학'적 문제지평에서 출발하고 있다.

첫째, 변화가 심한 독일의 역사에서 일관된 흐름을 고정시킬 수가 없으므로 하나의 독일상 내지는 독일문화가 존재하는가하는 문제를 의식하고 있다.

'독일'이라는 말과 함께 연상되는 것들은 다양하고 서로 모순되어 있다. 단편적이고 잠정적인 인상적인 것들 사이의 모순이 독일상의 다양성과 단절성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각이 첫 시간을 통해 '독일문화와 예술' 강의의 큰 테두리로 미리 전제된다. 따라서 강의는 여러가지 파편적인 독일상들에서 출발하고, 그러한 단편적이고 잠정적인 것들이 어떻게 독일땅에서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예술작품으로 나타나는지를 이해하는 과정이 곧 강의의 본격적인 전개라 할 수 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현대매체사회의 무수한 경로를 통해 얻게되는 크고 작은 덩어리의 독일에 대한 정보들이 역사의 맥락 속에서 그리고 상호간의 재결합 속에서 그 단편성과 일방성이 수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강의의 요체이다. (대학에서 수행되는 인문학적으로 정초된 지역학은 대학외에서도 가능한 지역학적 정보들과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는 독자성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변별성이 구체적으로 어떠한지 하는지는 이 자리에서 논할 수는 없으므로 여기서는 이 정도의 지적으로 그치기로 한다.)

지역학으로서의 독일학은 수업이 이루어지는 지역의 문화와 독일의 문화 사이의 상호성, 즉 문화적 상대성에 대한 섬세한 감각을 중요시한다. 이러한 수용자측면의 강조는 '독일문화와 예술'의 수업의 목표및 개요에도 반영되어 있다. 수강생들의 많은 숫자가 독일통일에 대하여 우리나라와의 관련성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점은 이 강의가 그런 측면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다. 이 강의에서는 '독일역사에서 통일이란 무엇인가'의 제하로 두 지역 사이의 비교가능성, 비교불가능성을 구체화시키게 된다.

2. 학제간 연계

위와 같은 독일학적 관점을 강의 전반에 걸쳐 견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가 선결되어야 한다. 이 두 문제는 곧 독일학의 학제적 성격과 관련된 것이기도 하다. 첫째, 과연 어떤 단편적인 독일상이 수업을 통해 문화사적, 심성사적 유의미성을 확보하게 되어야 하는지의 관점상의 문제이며, 둘째 그러한 독일상을 어떤 예술현상과 어떻게 연결시키는가 하는 조직상의 그리고 기술상의 문제이다.

첫번째와 관련하여서는, '독일문화와 예술'은 막스 베버 Max Weber의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의 정신 Die protestantische Ethik und der kapitalistische Geist', 프리드리히 마이네케 Friedrich Meinecke의 '독일의 재난 Die deutsche Katastrophe', 헬무트 플레스너 Helmut Plessner의 '지각한 민족 Die verspätete Nation', 고든 크레이그 Gordon Craig의 '독일인에 대하여 Über die Deutschen', 노버트 엘리야스 Nobert Elias의 '독일인에 대한 연구. 19, 20세기 동안의 권력투쟁과 독일적 체질의 발달 Studien über die Deutschen, Machtkämpfe und Habitusentwicklung im 19. und 20. Jahrhundert', 막스 호르크하이머 Max Horkheimer 등의 '권위와 가족 연구 Studien über Autorität und Familie'등에서 밝히고 있는 소위 '독일적 심성구조'에 대한 역사학적 사회학적 작업성과에 정향되어 있다.

이러한 방향설정은 연대기적 고찰에 있어서 어떤 역사적 시기를 특히 어떤 관점에서 선택하는지의 기준을 제시하게 된다. 예를 들어 인문주의와 루터의 단원에서는 공식적으로 전체유럽의 인문주의와 맥을 함께 하면서도 예술보다는 과학적, 학문적, 종교문제에 집중되어 나타나는 독일 인문주의의 특징과 이러한 독일인문주의의 배경에서 루터의 출현을 부각시킨다. 농민반란에 대한 루터의 입장에서 이미 독일적 비정치적 '자유'개념이 자리잡는다고 할 수 있는데, 전유럽적 영향을 미친 종교혁명가로서의 보편성과 종교성에서만 제한되어 이해되어 온 루터를 정치혐오 Antipolitik의 독일전통을 만든 '독일인'으로서 지역화, 세속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각 시기는 이런 식으로 공식적, 통시적으로 유럽적인 맥락과 향후 독일적 맥락이 교체되면서 제시된다. 18, 19세기는 각 정신사적, 문화사적 시대

의 이슈를 따라 '독일운동 Deutsche Bewegung'의 변질이라는 하나의 시각 아래 비교적 일관되게 다룰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나치즘으로의 단선적인 발전으로 독일의 대전전 근대역사를 볼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획들이 산재했던 다양성의 문화라는 점을 이해시키는 것이다. 이 점에서는 '독일 문화와 예술'은 '독일의 특수한 길 der deutsche Sonderweg'에 대한 역사학자들의 논쟁과 독일 역사속의 시민성에 대하여 유럽각국과의 비교관점에서 이루어진 최근의 연구업적에 기대고 있다.¹⁾

대전 후의 현재의 독일문화는 단절된 전통 뿐 아니라 다양성이라는 점에서는 전통을 확고히 고수하고 있다. 교육과 문화부문에서 여전히 지켜지고 있는 지방자치적 특징은 독일사회의 서구민주주의적 재교육의 성과와 더불어 오늘날의 독일의 얼굴을 각인짓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본 강의의 독일학적 내용을 결정짓게 되는 인문학적, 특히 역사학적인 기본관점들을 기술해 보았다.

두번째 문제는 이러한 기본틀 내에서 예술사조와 작품을 끌어들이는 것인데, 이것은 문학사와 정신사의 관점에 서서 기존의 예술사적 작업을 활용할 수 밖에 없다. 여기에는 지역학의 입장에서는 다시 두 가지의 난점이 있다.

첫째, 유럽예술사의 경우 국가별 지역별로 따로 나누어서 다루는 연구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소개되어 있지 않고, 있다고 해도 매우 대략적인 언급에 그치고 있다. 사실 유럽예술에서 민족적 특징이 뚜렷하게 추구된 것은 18세기, 19세기이고 그것도 언어예술분야에서 가장 적극적이었다는 것을 떠올린다면 이러한 상황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대부분의 미술, 음악사는 지역학적 관심이 아니라 예술사, 예술이론적 관심에서 썩어진 것이므로 기존하는 개별 연구성과를 지역학적 관점에서 재배열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학생들의 발표에서도 이 점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자주 지적하게 된다. 여기에는 인터 나치오네스에서 제공하는 자료가 그나마

1) Vgl. Jürgen Kocka(Hrsg.), Bürger und Bürgerlichkeit im 19. Jahrhundert, Göttingen 1987; Ders.(Hrsg.), Bürgertum im 19. Jahrhundert. Deutschland im europäischen Vergleich, München 1988.

큰 도움이 되었다.(Das kulturelle Leben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Inter Nationes, o.A. - 독일문화원 소장)

문학분야의 경우는 강의자의 흥미에 따라 여러가지 텍스트를 창의적으로 골라 학생들에게 독후감으로 3분 스피치의 형식으로 이야기하게 하고 토론을 이끈다. 문학사적으로 중요한 작품의 국역일 수도 있고(니벨룽겐의 노래, 파우스트) 현대작가의 대중적이고 흥미로운 텍스트일 수도 있다. 본 강의에서는 문학적 시각보다는 독일문화의 관점에서, 문화학적 시각에서 '해체'시키는 방향으로 다루기도 한다. (쾰스킨트의 '콘트라베이스', '깊이에의 강요', '승부')

두번째의 문제로는 인문학과 음악, 인문학과 미술의 결합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독일학의 관점에서 유용한 연구는 아직 없다는 점이다. 그런데 인문학과 미술의 결합을 시도한 것으로 최근 역시 학제적 접근에 관심이 높아진 국내 미술학계에 소개되기 시작한 '바르부르그학과 Warburger Schule'가 문헌학적 기반에서 내면양식을 연구했던 독일 문화학이었다는 사실은 흥미롭다.

마지막으로, 지역학으로서의 독일학을 수행함에 있어서 우리 현실에서는 유럽이라는 콘텍스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독일통일과 유럽통합이 동전의 양면처럼 결부되어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 중요성을 획득한다. 유럽에서 시도되고 있는 공동의 역사서술이 (새유럽의 역사, 유럽 공동의 역사 교과서 (프레체리크 들루슈 편), 윤승준 역 1995) 소개되고 있는데 민족주의와 개방적 지역주의로 공동체의 이상이 혼재된 현재의 유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잣대를 제공하는 것이 독일이기 때문이다.

III. 문제점과 한계

우리 현실에 있어서 독일학 연구와 강의에 있어서 가장 큰 난점은 - 이 미 잘 알려져 있듯이 - 학제간의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학제간 교육을 받지 않는 강의자가 혼자 힘으로 역사학, 사회학, 정치학, 경제학 나아가 다른 예술분야 까지 접근을 시도하는 것은 힘들다. 그러나

학제간 소통과 공동작업의 형태를 관련분야의 전문가와 공동으로 강의를 하는 방식으로 택하더라도 그 공동작업의 주축은 문헌연구자에게 요구되므로 이 경우에도 그에게 요구되는 학제적인 소양의 부담이 결코 덜하지 않다. 어떤 형태라고 하더라도 독문학이 학제통합적 독일학으로 방향조정을 해야한다면 독문학연구자에게는 역사학 또는 사회학과의 연계는 불가피한 현실로 보인다.

여기에 또하나, 지역학의 일반적 기초가 될 기본교재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것이 강의의 실재를 더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여행자를 위한 극히 실용적이고 일회적인 정보의 수준을 넘어서는 지역에 대한 지식을 담고 있는 지역 입문서는 현재 시중에 나와 있지 않다. 물론 이것은 독일지역에만 해당하는 '시장의 틈'은 아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타지역에 대한 지식의 수요가 현재로서는 관광객으로서, 여행자로서의 소비자의 요구 수준에서 그치고 있으니 여기서 '시장의 틈'에 대해서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대학교재시장에 한해서는 이것은 맞는 말이다. 문화사적으로 구성된 기존의 교재는 지역학적 정보의 기초 위에서 혹은, 그와 병행하여야 제대로 기능할 수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독일 문화와 예술'의 통시적 접근방법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학생들은 통시적 방법보다는 세부분야로 나눈 '테마사냥'을 일반적으로 선호한다. 그러나 현재의 수업방식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소재적으로 독일의 현재를 '더 많이' 다루어줄 것을 원할 뿐 대체로 긍정적인 듯하다. 통시적인 강의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강의 중에 수시로 독일의 현재가 언급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강의는 정확히 말하자면 통시적인 틀 안에서 혼용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앞으로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현재의 독일에 대해 더 많이 다룰 경우, 지금까지 통시적인 테두리 내에서 적용되고 있는 혼용식 접근방식을 '명시적으로 표명'하여 확고한 '혼용방식'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이것은 독일학의 여러 기본관점 - 독일상의 다양성과 단절성, 수용자측면, 상호문화성의 강조, 학제적 성격 - 들을 새로운 소재영역과의 연관성 속에서 재해석, 재배열하는 것을 의미한다.

IV. 결론을 대신하여

문헌학자이자 민속학자였으며, 또 당대 최고의 법학자중의 한 사람인 사비니(F. K. von Savigny)와 함께 그의 사설도서관에서 작업을 하던 그림(Grimm)형제가 정초한 것이 독일학이었다. 그것은 당연히 학제적이었고, 그와 동시에 프랑수아적 보편주의에 반한 독일낭만주의의 기운 속에서 출범한 것이었다. 그런 독일학이 한편으로는 학제적 분화를 거치고, 다른 한편으로는 유럽문화의 비유럽문화권으로의 확산 과정 속에서 정립된 것이 우리 나라에서의 독문학이라 볼 수 있다.

오늘날 한국의 독문학에게 다시 '통합성과 지역성'이 요구되는 것은 비록 그것이 다분히 상황적인 논리에서 처음 출발한 것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더 일반적인 차원에서 숙지해 보아야 할 의미가 들어있다. 독문학(독일학)의 발생토양이 되었던 것이 '문화적 상대주의'와 '문헌학'이었다는 사실은 오늘날 우리 인문과학에게 시사하는 바가 결코 적지 않다. 독일낭만주의와 결부된 문화상대주의는 문화의 교차와 공존시대에 한국문화의 특수성과 세계문화의 보편성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하는 오늘날 우리 인문과학의 당면 논구를 위하여 하나의 이론적 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²⁾ 18, 19세기 문화상대주의의 학문방법론적 정체성은 철학이 아니라, '인식된 것을 인식'(Erkennen des Erkannten)하는, 철학의 철학인 문헌학에 있었다. 이러한 문헌학적 정신은 20세기말의 문화상대주의의 맥락에서는 어떠한 형태로 구현될 수 있으며, 구현되어야 할까? 문화학으로서의 지역학이란 지금까지 개별학문에서 이루어진 지식들을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식들을 자기 학문의 앞마당에 가지고 와서 재배열하고 연결시키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재배열작업, 학제통합의 주축이 되고 있는 것은 - 그리고 이전에도 항상 그래왔다 - 그 어느 누구도 아닌 문학연구자라는 사실이 중요하다. 그것은 마치 문학적 담론의 특수성이 여타 담론들을 상호 연결시키고 통합하는데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의 사정일 수도 있다. 혹은, 현대의 문학연

2) 이러한 성찰의 시도로서 최근의 철학적 성과들을 "문명의 전환과 한국문화" (한국철학회 편, 철학과 현실사 1997년)에서 볼 수 있다.

구의 모태가 된 문헌학적 기반 자체가 바로 모든 문화학의 내면양식이기 때문인가 - 바이마르 시대의 문화학이 문헌학적 기반을 다진 내면양식에 대한 학문이었던 것처럼 - ?!



강 의 개 혁 서

1997년 1학기 '독일 문화와 예술'

(전교생 교양선택, 3학점 주당 강의 3시간)

수업목표 및 개요:

서양문화와의 만남을 통해 비서양문화권이 겪는 정체성의 위기는 여러가지로 나타난다. 기술은 서양의 것을 받아 들이되 정신은 전통의 것을 고수하자는 이원적 원리는 이슬람 문화권의 지배적인 대응 원리로 그 실천상의 난점은 이슬람 근본주의(根本主義)에서 극명하게 나타난다. '문화와 정체성의 위기'를 담보로 근대적 서양문물을 비교적 적극적으로, 성공적으로 수용해 온 우리의 경우, 이제 '정체성', '문화'의 개념은 단순히 '대응원칙'의 수세적 차원을 넘는 문제로 오늘날 다시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경제성장과 여타의 다른 사회적 발전 사이에 존재하는 깊은 골을 극복하는 것을 그 역사적 과제로 안게 되는 것이 후발 근대선진국의 사회유형이라 할 때, 우리의 경우 또한 그 중의 한 형태로 거칠게나마 성격지워질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유럽지역에서 후발선진국의 대표적인 예인 독일에 대한 포괄적이고 깊이있는 이해의 창(窓)으로서 독일 문화와 예술은 우리에게 예상 밖의 시의성을 띠는 분야로 다가온다.

수업방식:

강의와 토의로 진행되며, 필요에 따라 시각적, 청각적 교재의 도움

을 받는다. 전공분야와 관련된 주제에 대하여 수강학생은 자발적으로 발표할 기회를 가지나 발표가 의무는 아니다.

주교재 및 참고문헌:

빌헬름 괴스만, 독일문화사, 양도원 옮김, 아바벨 1996.

이민호, 독일, 독일민족, 독일사. 분단독일의 역사의식, 서울 1990.

헬무트 키젤, 18세기 독일의 사회와 문화, 오용록 옮김, 강원대 출판부, 1993.

프리드리히 마이네케, 독일의 비극, 이광주 옮김.

그외 참고문헌은 각 주제별로 수업 중에 소개된다.

수업내용:

제 1주

강의소개.

독일역사에 있어서 '통일'이란 무엇인가. 독일적인 것, 게르만적인 것?

제 2주

독일 도시풍경 속의 고대와 중세를 찾아서

제 3주

독일의 인문주의와 루터의 종교혁명

르네상스의 예술가 알브레히트 뒤러(Albrecht Dürer)

제 4주

30년 전쟁(1618-1648)의 악몽과 바로크 문화

바로크의 음악 - J. S. Bach와 F. Händel

바로크의 성 - B. Neumann

제 5주

독일 계몽주의

G.E. Lessing과 '이성의 절도'의 독일계몽주의

'질풍노도(Sturm und Drang)'- '이성과 걱정'의 청년들

제 6주

고전주의의 괴테와 쉴러의 도시 바이마르

'철학' - 독일에서의 혁명

제 7주

낭만주의 - 독일적 문화운동

낭만주의의 풍경화(C.D.Friedrich)와 음악 (L.v.Beethoven, R. Schumann,
F. Schubert)

제 8주

중간시험

제 9주

낭만주의와 게르만신화의 결합 - 바그너의 음악드라마
19세기 통일독일의 사회상 - 풍자화가 부쉬(W. Busch)

제 10주

독일 현대 예술

유겐트슈틸(Jugendstil), 표현주의(Expressionismus)

제 11주

황금의 20년대와 바우하우스(Bauhaus)운동

제 12주

히틀러독일 - 예술의 수난, 전통의 단절

제 13주

2차대전 후의 독일사회 - 앵글로색슨식 민주주의재교육과 대안운동
통일독일 - 역사의 실험 유럽통합의 구심점

제14, 15주

보충 및 정리

제 16주

학기말고사

발제에 대한 토론

정상수: 마이네케의 'Deutsche Katastrophe'를 역자인 이광주 선생님께서 '독일의 비극'이라고 하셨는데, 배선생님께서 왜 '독일의 재난'이라고 하셨는지요?

배정희: 예, 저는 'Deutsche Katastrophe'를 독일의 재난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광주 선생님은 그것을 독일의 비극이라고 했을까요? (웃음)

정상수: 제가 보기에는 내용상 '재난' 보다는 '비극'이나 '파국'이 더 적당한 것 같습니다.

배정희: 그것은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른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는 마이네케의 저서를 언급하는 차원이지만, 특별하게 이광주 선생님의 번역본을 인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번역서의 제명(題名)을 따라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정상수: 내용 문제에 있어서, 독일이 서유럽의 발전과정에서 이탈하게 된 '특수한 길 테제 Sonderwegthese'는 발제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8, 19세기에 나온 것이 아니라 17세기에 이미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의 계획서에 나와있는 '철학에서의 독일의 혁명'이라는 용어도 적절치 못하다고 봅니다. 1780년대의 영국의 산업혁명과 프랑스의 정치혁명에 견주어서 말할 때는 독일에서는 정신혁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영국이나 프랑스처럼 독일에서도 절대왕정을 수립시킬 기회가 있었습니다. 황제 페르디난트 2세 Ferdinand II가 발렌슈타인 Wallenstein의 도움을 얻어 30년 전쟁 중인 1629년에 독일제후들의 권리를 억제하고 절대왕정, 즉 국민국가를 수립시킬 수 있었지만 프랑스와 스웨덴의 외압으로 좌절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Sonderwegthese'라는 독일의 특수성의 시작은 18, 19세기가 아니라 17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배정희: 저는 'Sonderwegthese'가 18, 19세기에 나온 것이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당연히 17세기, 특히 30년 전쟁이 그이후의 독일 역사를 규정했음은 분명합니다. 사실 중요한 것은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많은 이 테제를 빌리는 이유, 빌리는 방식이라 할 것입니다. 저로서는

이 테제가 20세기의 역사적 경험의 전제로서의 18세기말, 19세기의 독일 일을 설명하는데 하나의 일관된 시각이라는 것이 전문역사학자들에게는 논란의 대상이 되겠지만, 독일의 19세기상을 학생들에게 '전달'하는데에는 그만큼 기여하는 바가 있다 하겠습니다.

안삼환: 너무 역사쪽으로, 각론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요?

전영애: 강의 계획서의 참고문헌에 독일문화에 관한 자료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정희: 사실 자료는 아직도 모으고 있는 중이지만, 독일문화와 예술을 위한 자료 모음집의 내용 중 일부를 예로 들면 루터의 사료(史料), 『Deutschland Aktuell』에서의 Heine에 관한 내용, 쥐스킨트 Süskind의 단편, 신문(新聞), 이민문학 Migrationsliteratur(특히 일본인 타바다가 독일인에 대해 쓴 글) 같은 것들입니다.

강창우: 강의 계획서를 보니 음악, 미술, 역사 등등 다루는 내용이 다양하고 알차긴 하지만 너무 구체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 내용이 책으로 만들어져 많은 사람들이 교재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독일에 대한 상(像)을 체계적으로 세우려면 이런 수업도 필요하긴 하겠지만, 깊이 있는 좀더 다양한 분야를 다루어야 하지 않을까요.

배정희: 제가 이번 학기에 '독일문화와 예술' 외에도 '독일학 개론'이라는 전공선택과목도 맡고 있습니다. 그 세미나에서는 다양한 분야를 백화점식으로 다루려는 시도도 해 보고 있지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삼환: 지금 이 과목은 교양과목이죠?

배정희: 예,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과목입니다.

강창우: 독문학을 전공으로 하는 사람에게도 사실 이 내용은 중요한 것 같은데.....

안삼환: 그렇죠, 교양 학생을 위해서도, 전공 학생을 위해서도 다같이 중요합니다.

강창우: 전공자든 비전공자든 학생들이 독일에 대한 상을 얻기 위해 지역학 강좌를 두 세 개씩 수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한 강좌에서, 내용은 어떨지 모르지만 전반적이고 체계적으로 다루어야 할 필요성은 못 느끼셨는지요?

배정화: '독일학 개론' 수업과 관련되는데 사실 뭘 다루어야 할 지 몰라서, 지난 학기 학생들에게 각자가 관심 있는 테마를 정해 발표하도록 해 보았는데 역시 산만하더군요.(웃음) 서로 동떨어져 있는 분야를 하나로 묶는 시도는 해 보았지만 역부족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윤미애: 지역학은 대학 외에서도 강의가 가능하며, 지역학자들 간에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많다고 봅니다. 저는 그 변별성, 즉 독자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배선생님의 강의 계획서에는 그 변별성이 아주 잘 드러난 것 같아요.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강의를 단편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강의 계획서대로 통일성있게 되셨는지, 다시말해 종강 즈음에 처음에 제기했던 문제로 돌아올 수 있었는지 하는 것입니다.

배정화: 예를 들어 중간과제물로 "독일 문화의 세 가지 특징을 들고, 그에 대해 역사적, 문화 예술적으로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라"는 주제를 내주었습니다. 역시 학생들 간의 선지식의 차이가 매우 컸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들 간의 수용 내용도 판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업의 마지막에서 '이것이 독일이다'라고 단정하는 것은 피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안삼환: 비록 교양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지만 상당히 고심한 흔적이 보입니다. 무엇보다 독일에 대한 올바른 인식, 예를들어 루터 이후 독일인들의 비정치적인 특징 등을 심어주도록 잘 배열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말해 종합적인 상을 막연하게나마 재구성한 것 같습니다. 부족한 것은 보충하고, 또 우리의 현실여건이 불행해도 나름대로 중대한 일을 하고 있다는 사명감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광: 너무 문화사 쪽으로 치우친 감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독일의 현재에 대해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다루어야 하겠는지요.

안삼환: 생태시 Ökolyrik는 어렵지만 그래도 환경문제는 아주 일찍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런 슬라이드를 개발하면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나 현대 독일인들이 무엇을 생각하는가, 예를 들어 독일인들이 왜 유럽통합을 원하는가 하는 류의 주제들을 다루면 좋겠습니다.

[정리: 윤순식, 이재원]